

글로벌 예산 500억, 지역대학과 함께

전북대, 공유 인프라·교육 콘텐츠 구축 등에 활용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 대학30 사업의 본 지정대학 선정 시 수주할 예산 중 500억원을 전북지역 대학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화제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 9월 22일 전북도와 전북지역 10개 대학과 함께 도내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 본 지정 시 받게 될 1천억 원의 예산과 지자체 대응자금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지역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쓸 예정이다.

이 예산을 활용해 전북대는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활용할 공유 인프라 구축이나 공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적극 투자하고, 전북대가 갖고 있는 우수한 교육과 연구 인프라, 시설 및 장비, 대학 내 편의시설 등을 전북지

역 대학 학생들에게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UC) 시스템을 모델로 전북대가 플래그십 대학의 역할을 맡고, 전북지역의 각 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분담해 지역 사회와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거점 대학-산업 도시(JUIC, Jeonbuk Universities-Industry City)를 구축해 이를 전북지역 대학들과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기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대학생들이 미국 하버드대학, MIT,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드래스덴 공대 IJK 연구소, 프랑스 실라콘벨라인 Station F 등으로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우리대학만의 독자적 발전이 아니라 지역대학들이 함께 지역별 강점 분



전북대학교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본 지정대학 선정 시 수주할 예산 중 500억원을 전북지역 대학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전경.

야를 육성해 지역발전의 큰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우리 전북대가 갖고 있는 우수 인프라를

전북지역 대학들과 아낌없이 공유해 모두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도내 최초로 2023 전북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교육물품전시회가 5일 전북혁신창업허브 1층 첨단누리홀에서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교육물품 한눈에... 도교육청 '교육물품전시회'

도내 처음으로 개최... 지역업체 물품 구매 상담의 장 마련

도내 최초로 2023 전북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교육물품전시회가 5일 전북 혁신창업허브 1층 첨단누리홀에서 열렸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주시(시장 우병기)가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에는 30여개 업체가 참여해 교육기관의 수요가 많은 시설, 자재, 교

육물품 등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방문해 전시장을 둘러보며 도내 참가업체들을 격려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 7월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8월에는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내 고장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교육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우수기업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교육기관에는 경쟁력 있는 물품 정보를 제공해 지역과 교육이 서로 상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W직무페스타' 성료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5일 문화관 일원에서 열린 '2023 W직무페스타'에 재학생 및 지역 청년 1,000여명이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취·창업 준비하는 재학생과 졸업생, 고교생 및 청년들에게 지역의 우수 기업을 소개하고 멘토링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시장을 찾은 김재훈(미디어영상학과 3년) 학생은 "전공 분야에 대한 특정 직무를 명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진로 방향이 불명확 점이 많았다"며 "선배와 기업 관계자들의 멘토링과 직무채널 등을 통해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와 직무에 대해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천현 총장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학생에게는 사전 진로에 대한 목표 설정을 지역 청년들에게는 성공적인 취업전략 수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지역 내 고용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재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의 진로 및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실전문제연구원

공학교육학술대회 참가

국립군산대학교 실전문제연구원(단장 박성신 건축공학부 교수, 부단장 안민철 전기공학과 교수)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2023 공학교육학술대회'에 참가하여 '2023 동서융합 스마트기술 실전문제연구원'의 중간성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동서융합 스마트기술 실전문제연구단은 군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목포대학교의 지방국립대 컨소시엄으로 2022년 현장연계 미래선도인 재양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대학원과 학부생 연구팀의 산업계 문제해결 연구과제 수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2023 공학교육학술대회는 '엔데믹 시대의 공유협력'을 위한 공학교육을 주제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렸다. 동서융합 스마트기술 실전문제연구단의 12개 연구팀이 참여했다. 스마트 부품소재, 스마트 시티,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해양생태 분야별 연구 주제에 따라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가 동시에 진행됐다. /군산=김광근 기자



5일 전주우림중학교에서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 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 '본격'

우림중서 전달식 열어... 총 6만5496대 12월까지

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5일 전주우림중학교에서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으로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제1호 공약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각급 학교에 보급이 시작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우림중 2학년 1반 학생 대표에게 스마트기기를 전달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에도 관한했다. 서 교육감은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일

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스마트기기와 전자책 보급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이 활발해지면 수업 분위기가 달라지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2023~2024년 2년간 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약 888억원을 들여 초6 및 특수학교 학생에 웨일북 16,513대, 중2 및 고1·2 학생에 노트북 47,888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사업예산액 1,011억4천여 만원을 확보해 초4·5, 중1·2, 고1 학생들에게도 83,488대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은성 기자

예체능 계열 입시가 궁금하시다구요?

도교육청, 내일 미술·음악·체육 관련 입시설명회

도내 고교 1~2학년 학생 대상 입시 동향·전략 안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위한 미술·음악·체육 관련 입시설명회가 열린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창조미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예체능 계열 입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예체능 계열은 실기와 내신·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입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예체능 계열 대입 준비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각 계열 최고의 입시 전문가로 강사진을 꾸렸다.

먼저 창의고 양인실 교사가 미술계열 지원 전략을 안내한다. 이어 2시 40분부터는 경민고 정명근 교사가 음악계열의 입시 동향 및 전략을, 3시 40분부터는 전주한일고 김상훈 교사가

체육학과 현황과 수시 및 정시 전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양인실·정명근 교사는 경기도교육청 진학리더교사이며, 예체능 각 분야에서 진학지도 제작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입시 전문가다. 또한 김상훈 교사는 전북 대입지원단 수능전형팀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학생들의 입시에 누구보다도 해박하다는 평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가 끝난 후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예체능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체능 계열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내 상업계고 학생들, 전국 대회서 역대 최고 성적

전국상업경진대회서

금 8·銀 3·銅 9 획득

전북 상업계고 학생들이 전국 대회에 참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5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지난달 14~16일 경남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전북 지역 상업계고 학생들이 금8·은3·동9 등 모두 2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6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은 금융실무를 비롯한 11개 경진종목과 창업동아리 엑스포 등 4개 경연종목에 10개교 109명의 학생이 출전했다.

이 대회 금상 수상자는 △창업실무 종목 전주상정보고 이재용(2년) △사무행정 종목 강화향공고 김보경(3년) △비즈니스영어 장민아(3년) △금융실무 종목 전주상정보고 객민주(3년)·강호향공고 김계택(2년) △호텔식음료서



지난달 14~16일 경남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전북지역 상업계고 학생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비스실무 종목 유찬미(3년)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 종목 김민술(2년) 학생 등이다.

또 창업동아리엑스포 종목에서는 완산여고 W HOTEL 동아리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대회를 준비한 학생과 지도교사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도내 학생들이 전국대회 출전을 통해 상업정보 분야 역량을 키우고,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글로벌 워크숍 이수증 수여식

전주대학교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지난 4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과 함께 진행한 글로벌 워크숍 이수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업 및 어학 성적, 면접 등 자체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 참여학과 10명의 학생이 선정, 토론토 대학 C-MORE 연구소에서의 글로벌 워크숍을 무사히 이수한 학생 10명 모두에 수여됐다.

2023학년도 교육 운영 혁신 모형개발 계획(안)에 따라 해외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토론토 대학을 방문해 관련 자 인터뷰 및 해외 대학교에서의 기계 학습, 딥러닝 교육을 진행했다.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 고선우 단장은 "우리 대학의 글로벌 미래를 주도할 인재들을 격려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미



래의 더 큰 성취를 이뤄 낼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글로벌 시대를 개척하는 데 전주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학과 권윤형 학생(3년)은 "이번 글로벌 워크숍을 통해 나의 노력과 열정을 펼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더 인공지능 분야 발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